



밀알&세계

02 2018 | Vol.306

MILAL & WORLD

■ 칼럼



밀알이 밀알이 되려면

제목의 앞의 밀알은 밀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뒤의 밀알은 참된 밀알, 다시 말하면 죽어지고 썩어지는 밀알을 말한다. 밀알이 밀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처음 밀알선교단을 시작할 때 젊은이들의 마음상태와 각오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자 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시작하였다. 39년 전 이재서 총재도 미혼이고 나도 미혼이었다. 젊은 총각들이었다. 총신대학 3학년 때였다. 그 때는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함도 없었을 뿐더러 장애에 대하여 무지할 때였다. 나 역시 이 사역에 뛰어 들 때는 일주일간 기도해 보겠다는 답을 했다. 일주일

후 이 박사님이 기도해 봤느냐고 물을 때 난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죄책감도 있고 하여 밀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대학생 열 몇 명과 직장인 10명 정도가 성서유니온에 모여 '한국 밀알선교단' 창립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왜 지난 얘기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 밀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였는가를 알고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

이때 이재서 총재님은 밀알의 3대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첫째,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둘째, '장애인을 돕는다.' 셋째, '장애인을 바로 알린다.'이다. 내년이면

40년, 밀알이 이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 이 총재님께서 3대 목표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그 목표가 40여 년 동안 변치 않고 이렇게 현재도 맞을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다. 한국의 몇몇 밀알들은 복지에 맞추어 많이 변해 가기도 했다. 그러나 밀알선교단의 기본 정신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Y단체 같은 곳에서도 이제는 신앙적인 면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변했다. 앞으로 밀알만은 기본 정신을 잃지 말고 계속 정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장애인을 사랑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장애인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밀알은 이러한 밀알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2월에 미주단장회의가 애틀랜타밀알에서 열린다. 밀알지도자들은 한 번 더 밀알 정신에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월에는 밀알지도자학교가 시애틀에서 열린다. 밀알지도자들은 진정으로 밀알기본정신에 투철하고 여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밀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밀알을 섬겨 왔는가를 보고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된 것은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장애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만 있으면 행정적으로 좀 부족해도 사역에 기술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밀알 사역자로서 만족하다. 밀알을 섬기는 분들도 단장님이나 지소장님이 장애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덮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밀알 사역자들이 이런 기본정신에 충실할 때 밀알 단원들이 이런 기본정신에 충실 할 때 밀알은 썩어지고 죽어지는 밀알로 있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

글 | 정책정 목사 (미주밀알 총단장, 워싱턴밀알 단장)



표지사진:

1월 15일 열린 2018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김영길 미주밀알 이사장으로부터 장학금을 수여받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학업을 수행 중인 88명의 밀알 장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차례

- 02. 칼럼
밀알이 밀알이 되려면
- 04. 함께 나는 기쁨
뉴저지밀알 크리스마스 파티
- 06. 풍성한 연말
송년은 그래서 아름다웠다!
- 08. 따스한 겨울
워싱턴밀알 성탄 캐럴링
- 10. 새로운 소망
새해 신년 등반을 마치고
- 12. 행사 리포트
2018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 14. 밀알장학금 수상 소감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 15. 2017 뉴욕밀알 성탄
기쁨, 소망, 희망, 나눔, 그리고 성탄의 불빛
- 16. 아련한 그리움
안녕, 혜성아!

밀알&세계

뉴욕 • 코네티컷 • 뉴저지 • 필라델피아 • 캐나다 통합판

통권 제306호 | 2018년 2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강원호, 정책정

지역별 구독문의

뉴욕: 718-445-4442 | 코네티컷: 203-733-0156
뉴저지: 201-530-0355 | 필라델피아: 267-475-8637
캐나다: 416-491-0002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나누는 기쁨

뉴저지밀알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뉴저지밀알 크리스마스 파티가 지난 12월 23일, Dumont Calvary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50여 명의 밀알 친구들과 부모님들, 학생 봉사자들과 스텝들, 온누리교회와 GIM 청년들이 모여 빛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본격 시작된 파티에는 예배와 찬양, Julia전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나눔으로 시작해 밀알 친구들과 청년 봉사자들이 파트너가 되어 코르사주를 달고 골드 콘셉트로 장식된 포토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들 한껏 꾸미고 또 멋지고 예쁜 파트너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행복한 미소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식탁에 안 내를 받아 앉으니 젊고 활기찬 봉사자 학생들이 서빙해 주는 점심으로 편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메뉴에는 특별 요리사가 준비한 각종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기다렸던 매직 쇼가 열렸고, 마술사 아저씨가 나와 우리 모두에게 큰 웃음과 선물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성에 선생님의 신나는 댄스파티로 모두의 흥을 북돋아 주셨고,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 온누리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댄스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깜짝 산타 할아버지가 방문하여 밀알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셔서 즐거움 위에 기쁨까지 얻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생일을 맞이한 예은, 혜나, 성옥, 제인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져 아름답고 화려했던 2017년 크리스마스 파티의 막을 내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 가득한 하루를 보내며 또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모두 은혜로이 마칠 수 있었던 건 우리 모든 밀알 친구들과 부모님들, 학생 봉사자들과 스텝들, 각 교회 청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행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밀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글 | 뉴저지밀알 편집부





■ 풍성한 연말

송년은 그래서 아름다웠다!

유난히 2017년의 12월은 다채롭고 풍요로운 순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더해졌고, 새해에 대한 소망은 아름답게 영글었습니다.

정신건강 특강

말할 '화요 믿음의교실'에 출석하는 '이기항 장로님'은 유명한 정신과 닥터이십니다. 12일(화)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과 마음>에 대한 두 번째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프로이드의 학설을 기반으로 한 '방어기제'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1. 억압과 억제 - 억압은 의식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2. 부정 -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로서 아동과 심한 정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위협적인 현실에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불안을 방어해 보려는 수단입니다. 3. 투사 - 자신의 자아에 내재해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특성으로 돌려 버리는 것입니다. 4. 고착 혹은 병적 집착 - 성격발달의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다음 단계로 발달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단계가 주는 불안에서 벗어나려 하는 방어기제입니다. 5. 퇴행 - 비교적 단순한 초기의 발달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을 본 아동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응석을 부리거나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도 다시 못 가리는 경우입니다. 6. 합리화 - 실망을 주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처 입은 자아에게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설명하여 빠져나갈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자기기만의 방어기제입니다. 7. 승화 - 각 개인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근본적인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된 생각이나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적절하게 전환시키는 자아기

능입니다.

이런 이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명 강의를 해 주신 장로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지혜롭게 정신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년의 밤

12월 19일(화) 오후 6시. 한식당 '가야'에서 한해를 결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송년의 밤'이 막을 올렸습니다. 1부.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하고, 송년 만찬으로 교제하며, '김영광 목사님'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추운 겨울밤을 녹여내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라제일장로교회 사랑의교실 방문

7년 동안 토요 사랑의교실 디렉터로 봉사하던 '구자왕 목사님'이 부목사로 충성하며 섬기는 '유·초등부 학생들'을 대동하고 19일(토) 밀알선교단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 온 음식으로 대접을 해주시고, 오후에는 밀알 아동을 위한 특별 공연을 했습니다. 먼저 제일장로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해 온 율동과 성탄 찬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박수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알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크라프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스티커로 장식하는 <ornaments 만들기>를 했습니다. 필라제일장로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밀알 친구들과 곁에 앉아 도와주면서 차분히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서히 완성해 가는 것이 실로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성된 ornaments를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장식할 때,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지는 결과물에 모두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였습니다. 필라제일장로교회 어린이들로 인해 행복한 송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순서를 마치며 제일장로교회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밀알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에서 성탄의 의미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한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글 | 필라델피아밀알 편집부





■ 따스한 겨울

워싱턴밀알 성탄 캐럴링

201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워싱턴밀알 장애 가족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12월9일 열 계획이었다. 해마다 락빌 장로교회의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장애인들을 라이드하고 여선 교회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파티를 준비하며 교회를 예쁘게 장식하고 온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성탄 파티를 제공해 주신다.

하지만 이날 눈 사정으로 수고로이 준비한 파티가 안타깝게도 취소되어 성인장애인들의 마음이 몹시도 서운하였다. 그 대신 사랑의교실 장애아동들을 위하여 교사들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팀을 구성하여 19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가정 가정을 방문



해 캐럴을 불러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캐럴링을 가졌다.

산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가정 가정마다 촛불을 켜놓고 가슴을 설레며 기다리는 우리 장애아동들과 부모님들은 한 없이 기뻐한다. 선생님들 10여명이 대문에 도착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등 소리 높여 캐럴을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문을 열고 촛불을 들고 나와 우리 선생님들을 맞이하는 가정 가정마다 모두가 기쁜 웃음으로 함께 캐럴을 부르는 모두는 행복한 미소가 넘친다.

작년 한해에도 워싱턴밀알 사랑의교실을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섬겨 주신 모든 봉사자들, 사랑의 점심친교로 섬겨 주신 교회와 모든 분들, 사랑의교실과 함께 한 모든 장애아동들,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본다. ❄️

글 | 워싱턴밀알 편집부





■ 새로운 소망

새해 신년 등반을 마치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애틀랜타밀알 가족들은 새해 첫날 신년등반을 스톤마운틴으로 다녀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신년등반이지만 올해는 아주 특별한 등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틀랜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매우 춥고 바람까지 부는 날씨가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스톤마운틴 등반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시간이 되자 밀알가족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무장을 하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스톤마운틴에 도착하자마자 단체 사진을 찍고 등반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서로 밀어주고, 당기며, 손을 붙잡고 등반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에도 등반을 하다 보니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에는 땀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톤마운틴 정상에 올라 맞이하는 강한 바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 그 자체이며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감격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아마 그날따라 유난히 혹독한 추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했던 영하날씨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밀알센터에서 함께한 떡국은 마치 꿀맛이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밀알 사모님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2018년 새해엔 모든 밀알가족이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담대하게 맞이하고, 두 배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

글 | 최재휴 목사 (애틀랜타밀알 단장)



■ 행사 리포트

2018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2018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1월 15일(월) 오전 11시에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이사 겸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

어 ‘밀알 이야기’ 영상 상영과 전용규 행사부위원장의 기도,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 김영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길 목사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 6:2)’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알 장학금을 정성

껏 마련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선한 행위이며, 장학생들도 큰 믿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장학생들을 격려, 축복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고, 장학생 David Chung 학생의 특송에 이어 알렉스 류 사랑의교실 디렉터의 사회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시상한 후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감사의 말씀과 김영길 목사의 축도로 2018년 밀알 장학금 수여식 및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모두 막을 내렸다.

이종열 장학위원장과 김영길 목사, 이영선 미주밀알 부이사장, 이정수 행사위원장, 전용규 행사부위원장, 노상일 남가주밀알 이사 그리고 이은철 UMC 원로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장학생 14명과 근로복지생 4명, 꿈나무장학생 38명

(James Worldwide 10명, Moon Foundation 10명, Edison 5명, J&J 2명 포함), 한국장학생 10명, 제3국 및 북한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1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명 등 총 88명에게 \$136,800의 장학기금이 전달되었다. 이로써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233,800에 달한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사랑의교실, 사랑의 캠프, 예배모임 등 남가주밀알선교단의 각종 사역현장에서 성실히 봉사한 자원봉사학생들 중 103명을 선정하여 대통령봉사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였

고, 특히 연방 하원의원 Ed Royce 와 Alan Lowenthal이 수여하는 Congregational Certificate도 전달하였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88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들이 더욱 큰 희망과 비전을 지닌 채 학업에 정진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 친구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글 | 남가주밀알 편집부

■ 밀알장학금 수상 소감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해로 미주밀알 장학위원회에서 수여하는 밀알 장학금을 수상한 지 5년째가 되었다.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받기 시작했으니 밀알장학금은 내 유학 생활의 산 증인과도 같은 셈이다. 장애를 불문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학비와 생활비 이외에도 정기적인 학회 참석을 위한 경비 등 학교에서 받는 펀딩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밀알장학금은 무엇보다도 나의 이러한 재정적 필요를 채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나아가 내가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장학금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는 밀알장학금을 받으면서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믿고 지원해 주시는 선교단의 나를 포함한 많은 수상자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느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찾아나가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 말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허락해 주었고,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했다. 적어도 내가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은 내가 힘든 순간에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내가 올해로 한국 나이가 서른 살이 되었는데 길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삶의 행복은 바로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이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결코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내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워놓은 학업의 목표나 사업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적이고 이루어지면 교만의 씨앗이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요구하지 우리 자신이 변화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모두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채워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치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우리의 높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리듬에 각자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한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온함과 만족함으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이러한 영적 깨달음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글 | 권창규

(University of Georgia, 성인교육/인적자원개발 박사과정)

기쁨, 소망, 희망, 나눔, 그리고 성탄의 불빛

뉴욕밀알선교단은 다양한 성탄 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지난 12월 16일, 꽤 추운 날씨에도 뉴욕밀알 성탄 행사를 함께하려는 발걸음이 뉴욕장로교회로 이어졌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모였고, IN2교회 청년부는 크리스마스 치킨 세트로 잔치 분위기를 더했다. 뉴욕밀알선 오철 전도사의 인도로 크리스마스 찬양 콘서트가 시작됐고, 예인교회 정선휘 전도사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다.



뉴욕밀알과 함께 한 날들이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참 성탄의 의미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했다. 조승수 목사는 “바다의 풍랑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깨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며 “밀알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됐다”고 말했다.

함께 모인 청년들과 장애인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성탄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요.’ ‘늘 와 줘서 고마워요’ 하는 마음들이 부르는 캐럴은 은은하게 퍼져 나갔고, ‘우리 내년에도 같이해요’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들아 사랑해’ 하며 나누는 고백들은 찬양이 되었다. 자리한 IN2교회 한 청년은 “매주 토요일, 밀알에서 함께 한 시간이 모여서 1년이 됐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줄 몰랐다. 장애인 친구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따뜻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성탄의 분위기를 타고 진솔한 마음을 꺼내며 서로를 격려하는 뉴욕밀알의 성탄 분위기는 어디서도 연출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뉴욕밀알선교단 김자송 단장은 “밀알의 친구들은 우리 사회에 성탄의 의미를 일깨우는 일을 한다고 믿는다. 밀알을 다녀 간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느끼고 더 나누고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듣는다. 해마다 성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장애인 친구들과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봉사자들이 작은 것도 나누고 서로에 격려의 말을 해 줄 수 있어서 인 것 같다”고 말했다.

따뜻한 뉴욕밀알의 성탄절은 계속됐다. 12월 19일 퀸즈성경교회(담임: 조승수)와 함께 한 뉴욕밀알 성탄절 예배는 이 땅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아기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었다. 노수진 집사는 “한 해 동안



이 밖에 뉴욕윈드오케스트라는 12월 10일 정기공연에 뉴욕밀알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공연을 함께 나눴고, 12월 16일에는 노스아메리카 메디컬 오케스트라에서, 뉴욕충신교회는 12월 22일 ‘러브 투게더’ 행사에서 뉴욕밀알을 초청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밀알 친구들이 자리한 행사마다 성탄의 빛은 더욱 밝았고, 구주 예수 탄생의 의미가 더해졌다. 

글 | 뉴욕밀알 편집부



안녕, 혜성아!

태어나서 살아가는 많은 인생 중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사실, 세상에 태어남 자체가 수억의 확률 중에서 선택받은 성공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두 번째 성공이며, 영원한 성공임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혜성이는 첫 성공과 마지막 성공을 분명히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1996년 윤년의 2월 29일에 태어난 혜성이는 바로 한 해 전인 2016년에 스무 살이자 5번째 생일을 맞았다. 사랑하는 은혜선교교회 가족들과 밀알 파파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며 축복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던 그 저녁에도 혜성이는 조용히 눈을 뜨고 말없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혜성이 아버지의 스키요리는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다른 모임에는 잘 보이지 않는 형익이도 혜성이네 스키를 좋아해서, 혜성이네 모임에는 꼭 참석하곤 한다. 형형색색의 색깔도 그렇거니와 최고의 웨프 조 집사님의 요리는 식당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모임에서 더욱 화려하게 보여서, 먹기에 아까운 정도니까... 하나뿐인 딸 혜성이의 특별한 생일이기에 준비하는 마음이 요리에 비친다. 도착한 모든 사람들의 첫마디가 “와~”였을 정도였다. 그렇게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먹었던 호사스런 순간에도 혜성이는 G튜브로 작은 주사기 하나의 음식물을 위로 집어넣어 소화시키기만 하였다.

어느새, 혜성이의 기침소리와 가래를 걸러내는 소리가 귀에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듯 함께 웃으며 혜성과 함께 지내며, 축하해 주는 많은 사람들과 꼬마 때부터 함께 자라온 자녀들이 혜성을 통해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었다.

5년 전, 혜성이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버텼다. 매일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왕의 생명을 기도로 연장해 주신 것처럼, 혜성이의 생명도 그렇게 연장시켜 주신 것 같다. 그해 함께 떠난 여름여행의 추억도, 혜성이가 미국에서 성인으로 등록되어서 여러 서류가 바뀌는 시간도, 성인이 된 혜성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을까?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해 호흡하였고, 함께 살았던 혜성이가 있었다. 혜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혜성이의 친구, 가족, 혜성의 목사님, 혜성의 엄마, 그리고 아빠라고 불렀다. 이제는 혜성이의 하나님께서 지금 혜성과 함께 계시고, 20년간 디터보지 못한 발을 펴 주시고, 허리를 세워주시고, 웃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뛰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성공한 인생은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할까? 세상에서 한 번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간 혜성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에서 혜성을 다시 만날 때, 혜성을 꼭 먼저 발견해서 웃으면서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밀린 수다를 떨기 전에 이렇게 인사해 주고 싶다.

“안녕, 혜성아!”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뉴욕

12월 뉴욕밀알 찬양예배

12월 16일, 뉴욕과 뉴저지 크리스천 뮤지션과 함께 뉴욕장로교회에서 성탄 축하 장애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예배 및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정선희 전도사님의 말씀 인도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캐럴을 부르며 성탄의 기쁨을 만끽했고,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도 해주셨습니다.

노스 아메리카 메디컬 오케스트라 초청의 밤

‘노스 아메리카 메디컬 오케스트라’ 팀이 12월 16일 공연에 뉴욕밀알을 특별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맨해튼에서 있었던 공연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공연 중에 밀알 사역을 소개해주시며 가진 것으로 나누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희망적으로 만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12월 19일(화) 화요찬양예배는 퀸즈성결교회(담임: 조승수 목사)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풍성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밀알의 친구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주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며칠 앞두고 있는 성탄절이 더욱 환하고 밝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퀸즈성결교회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신교회 러브 투게더 행사 참여

12월 22일(금) 밤 총신교회에서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웃을 초대하는 러브 투게더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욕밀알 친구들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심어린 환대에 감격했습니다. 함께하는 게임에서 이순영 자매가 1등을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후 ‘The Savior Christ’ 성극을 감상하는 기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뉴욕밀알을 초대해주신 총신교회 문화기획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회 나눔

성공회 나눔 행사가 12월 23일(토)에 있었습니다. 밀알의 장애인 친구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눔 문화 센터는 도자기반 전시회, 색소폰 공연, 식사와 음료. 그리고 팡팡 터지는 빙고게임으로 함께 했습니다. 밀알선교단 사역보고를 통해 밀알 장애인 친구들을 소개했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빙고

게임은 장애인 친구들이 큰 재미로 참여했습니다. 성공회는 뉴욕밀알에 정기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기임원회의

12월 30일(토) 뉴욕밀알 스텝진은 정기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2018년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새롭게 강화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어린이와 성인 프로그램 이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재정후원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방안에도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18년 보다 발전된 모습을 한 밀알 프로그램을 기대해 봅니다.

2018년 첫 화요찬양예배

1월 9일, 2018년 첫 화요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분들과 반갑게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리며 2018년 한 해를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또 지역 교회와 더욱 생기 넘치는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화요찬양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 2018년 밀알사역에 주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 지역교회와 함께 하며 교회후원 확보를 위해
- 토요 사랑의교실의 새로운 장소를 위해

Social Service

12월12일 유명희 내과 진료 / 12월21일 Social 상담 / 12월28일 이순영 내과 진료

뉴저지

사무실 이전

새들브룩 시대의 개막!! 뉴저지밀알선교단은 티넥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랑의집을 매각하고 2017년 CO를 획득한 꿈터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꿈터가 자리한 새들브룩에서 새로운 장애인 선교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티넥 사랑의 집에서 사무실, 방과후학교, 화요모임, 밀알 동산교회 예배 등의 모임을 가졌는데, 꿈터로 사무실, 화요모임, 밀알 동산교회 예배 등의 모임을 옮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계속해서 참빛교회에서 모이며, 본부 사랑의교실도 듀몬트에 위치한 갈보리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이 위치한 꿈터의 주소는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입니다. 앞으로

뉴저지밀알을 방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꿈터로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우편, 후원금 등도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는 변동 없이 201-530-0355를 사용합니다.

뉴저지밀알을 위한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친구 뉴/저/지/밀/알/선/교/단

2017년 송년예배

12월 26일 마지막 화요일에 밀알가족들이 하나님께 한해를 감사하는 송년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침 생일을 맞이한 밀알 친구 예은이의 생일 파티도 하였습니다. 코트라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과 밀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준비해 주신 귀한 선물로 올하는 라플 추첨으로 선물을 나누어 가지는 기쁨을 누렸으며 우리의 박성민 전도사님의 유쾌한 게임으로 밀알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는 모든 밀알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밀알의 이름으로 주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며 새들브룩에서 더욱 힘차게 장애인 선교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교실과 방과후학교 방학

사랑의교실은 23일(토) 청년 슈퍼바이저들과 온누리교회 청년부, GIM 청년부가 연합하여 열심히 준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감사하게 마치고 30일(토) 한 주 방학을 합니다. 2018년 1월 6일(토) 다시 오픈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22일(금) 역시 방학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조촐한 파티를 열고 열흘간의 방학을 보내고 2018년 1월 3일(수)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방학을 싫어하지만 사랑의교실과 방과후학교에 짧은 겨울 방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요모임 장소변경

그 동안 참빛교회에서 뉴저지밀알 화요모임을 위해 장소를 빌려주어 매주 은혜로운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빛교회 목사님 이하 모든 교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9일(화)부터는 하나님께서 뉴저지밀알에게 꿈을 갖고 꿈을 꾸게 하신 터전인 꿈터로 장소를 옮겨 예배와 모임을 진행합니다. 퇴근길 차량이 몰려 팽팽 쪽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통정체의 괴로움을 날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화요모임에서 그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터에서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하나님 축복 넘치는 새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소리모아 어린이 찬양팀 방문

'아이소리모아찬양팀'이 12월 16일(토) 사랑의교실을 방문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찬양을 비롯하여 많은 찬양을 들려주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은 찬양을 다 외워서 오랫동안 찬양을 하는 것도 멋지고 우리 밀알친구들도 조금도 떠들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찬양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는 시간은 역시나 가만히 못 있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아이소리모아찬양팀이 성탄을 맞아 밀알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marshmallow 활동(방과후학교)

창작 수업 재료로 스파게티 국수와 머시멜로우를 연결해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보고 친구들의 최고 작품도 뽑아 보았어요.

미용봉사자 필요합니다

매월 둘째 주일마다 밀알에 와서 미/이용 봉사를 해주시던 조복순 자매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조복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밀알에 월 1회 오셔서 봉사를 해주실 미용 봉사자를 찾습니다.

김장했어요

와~~ 밀알이 이전을 앞둔 사랑의집에서 마지막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사랑스런 밀알 가족들이 우리의 이화순 권사님의 진두 지휘아래 2018년 상반기에 먹을 김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배추도 좋고 고춧가루도 한국에서 공수해 오고 실력도 좋아 김치 맛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김장한 다음 날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어떤 목사님 그룹이 뜻밖에 밀알에 김치 배달을 오셨습니다. 올해는 쌀 풍년 김치 풍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을 주는 메모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밀알이 더욱 더 성장해서 장애인 사역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전 모으기 통에서 동전을 꺼내다 누군가 종이에 글을 적어 예쁘게 접어 넣은 걸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글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감사합니다. 밀알이 더욱 더 성장해서 장애인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밀알동산교회 7주년

12월 3일(주일) 밀알동산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갈 6:2)하는 따뜻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밀알동산교회는 앞으로도 처음 시작할 때

의 비전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장애인 선교를 힘쓰며 불편하고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 날은 한국에서 오신 박창영목사(성결신학교 신학교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밀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

몽고메리교회 밀알의밤(6일)

매년 12월 3일은 UN이 제정한 '장애인의날'입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밀알선교단을 초청하여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사랑의 후원을 해주는 '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시무)에서 <2017 몽고메리교회 밀알의밤>이 열렸습니다. 약간은 춥고 거동하기 힘든 날씨였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을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금년 <몽고메리 작은 밀알의밤>에는 별도의 게스트 없이 단장 '이재철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찬양과 더불어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사역한 '토요 사랑의교실'의 영상을 보며 함께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밀알 수확 찬양 팀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을 연주하여 예배당에 따스한 영적기운이 번지게 하였습니다. 이어 등단한 이재철 목사님은 찬양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를 부른 후 짙막한 간증을 들려주며, 성경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름 앞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자의 길을 간 것처럼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즉 “집착과 편견과 환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증거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너는 내 아들이라!'를 열창함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단장님의 심정과 영성이 묻어나온 말씀과 찬양을 통해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커다란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예배 후 몽고메리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친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을 받아든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금년에도 '윤효숙 권사님'이 '수제 찹쌀떡'을 안겨주어 모두가 행복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성탄절에 밀알선교단 장애인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최해근 목사님'과 몽고메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송년의 밤(19일)

어느새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금년 송년의 밤은 19일(화) 저녁, '가야 식당'에서 열렸습

니다. 오후 6시에 모여 '송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성경 골로새서 3:13-15를 중심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동산'이라는 말씀을 증거해주셨습니다. “한 해의 말미에서 감사의 동산, 용서의 동산을 넘어 희망에 동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후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문하여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냉면 마니아인 '조영희 집사님'과 고성옥 권사님'은 맛있게 냉면을 드시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김도환 형제님이 용돈을 모아 온 단원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3부에는 프로 레크리에이션 강사인 '김영광 목사님' 부부가 순서를 진행함으로 단원들은 시종 일관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한 송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발한 게임과 서로가 하나 되는 귀한 순서를 진행해 준 김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의 밤을 마치고 '씨니출판사'(장석근 사장)에서 특별히 제작하여 보내준 신년 밀알 대형달력과 선물을 받아든 밀알가족들은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송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밀알 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첼트햄장로교회 토요 사랑의교실 식사 제공

첼트햄장로교회 '이웃사랑회'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밀알선교단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이웃사랑회'에서 성탄의 기쁨을 공유하는 마음으로 귀한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 첼트햄장로교회는 '김성수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하고 3월부터 새로운 리더십의 목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교회, 필라제일장로교회 방문(9일, 16일)

한마음장로교회(김영천 목사 시무)에서 Youth Group을 지도하고 있는 '한상민 전도사님'과 젊은 학생들이 토요 사랑의교실을 찾아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상민 전도사님이 친히 요리한 별미를 들려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16일(토) '필라제일장로교회'(강학구 목사 시무) 어린이들이 찾아와 '성탄 축하' 순서로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7년 동안 토요 사랑의교실 디렉터로 봉사한 '구자왕 목사님'이 교사들과 함께 밀알선교단을 방문한 것입니다.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해 온 것은 물론 성탄 찬양과 울동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순서마다 밀알을 배려하고 의식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장애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상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밀알 친구들을 만나는 어린 초등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은 16일 모임을 끝으로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한마음장로교회' 필라제일장로교회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송회〉 후원금 \$1,500 전달(10일)

매년마다 장애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송회'(회장: 김연수 장로)가 금년에도 사과를 판매해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0일(주일) 저녁 '라이라이 레스토랑'에서 열린 '일송회' 송년의 밤에 30여명의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송년모임이 뜻깊었던 것은 회장단이 새로이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이 회장의 중책을 맡은 '김연수 장로님'은 "금년 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회원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완쾌되었음"을 감사하며, 신 임원들과 더불어 성심으로 일송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엄청난 무게의 사과상자를 배달하고 수고한 일송회는 '김성영 전 회장님'이 나와 후원금 \$1,500을 단장 이재철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후원금을 받아든 이재철 목사님은 "무려 15년 동안 한해도 쉬지 않고 연말마다 발품을 팔아 후원금을 모아 전해 주시는 일송회 회원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너무 감사하다. 격려에 힘입어 더 열심히 장애인 사역에 매진할 것이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매년 변함없이 밀알선교단을 후원하는 일송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단장 〈구세군 자선냄비〉 찬양 지원(22일), Gwynedd 양로원(26일)

단장 이재철 목사님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22일(금) '구세군교회'(담임: 박도성 사관)에서 매년 겨울 개최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사업을 돕기 위해 한아름(H)-마트 정문에서 직접 기타를 치며 4시간동안 캐럴과 다양한 음악장르를 선보여 모금을 도왔습니다. 한편, 27일(화)에 드러진 필라목사회(회장: 이재철 목사) 주관 〈Gwynedd 양로원〉 성탄감사예배에서 은혜로운 설교로 연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믿음의교실 식사봉사(12일)

12월에도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화요 믿음의교실〉 장애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백남수 집사님'이 별식을 만들어 대접해 주었으며, 성도들이 서빙과 뒷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한 해 동안 장애인 사랑을 실천해 준 '예수사랑교회' '김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양명 목사님' 토요 사랑의교실 디렉터 사역 시작하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토요 사랑의교실 리더십이 새로이 출발합니다. 새해부터 수고하는 '주양명

목사님'은 송실대학교 철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귀한 분입니다. 얼마 전 랜스데일에 '사랑제일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고 계십니다. 담임목회를 병행하며, 토요일마다 사랑의교실을 이끄실 목사님은 사랑하는 '이명숙 사모님'과 슬하에 예쁘고 영리한 네 딸이 있습니다. 실력 있고 가슴이 따뜻한 주 목사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교실'

〈매주 화요일 PM. 7:30분-9:30분〉

5일: '수화찬양연습'-'몽고메리교회 밀알의밤'에 연주할 '회복시키소서!'를 이민성 집사님의 인도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12일: '특가'-밀알단원인 정신과 닥터 '이기황 장로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과 마음'에 대한 두 번째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19일: '2017 송년의 밤'-한해를 결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예배와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신년 벽두까지 잠시 쉬는 시간에 돌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프로그램으로 새해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AM. 10:00-PM. 4시〉

10:30 환영/10:50 찬양과 예배/11:30 성경 읽기, 그림 그리기/12:00 점심식사 /1:00 야외 활동/2:00 영화 감상, 작품 활동/3:00 핸드벨 연습/4:00 정리 및 폐회

2일: 오전에는 항상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으로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정소라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종이 접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Whiplash Clinic의 김성식 이사님께서 아이들 한명 한명씩 정성스럽게 카이로프랙틱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한 후 간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특별히 자원봉사자 Erin Lee의 어머니께서 고급스런 쿠키와 과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간식 후에는 청소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9일: 첫눈이 내리는 토요일 아침, 즐겁게 사랑의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활동으로는 비즈 만들기, 도형 만들기, 동화책 읽기 중에서 자신이 흥미로워 하는 활동을 택해서 참여하게 하였고, 어린이이 그룹은 장난감 방에서 자유놀이를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으로서 아기예수께 경배하러 간 목자들에게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마음교회의 한상민 전도사님

과 Youth Group 학생들이 맛있는 점심으로 우리 토요 사랑의교실 식구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고추기름에 찍어먹는 만두와 통닭카레였습니다. 독특하고 맛있는 맛에 모두들 만족스런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정소라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종이 접기 시간에 'Christmas tree ornaments' 만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심플해서, 모든 아이들이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완성이 가능하였고, 그 완성품은 화려하여서 아이들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16일: 오늘 2017년도 마지막 토요 사랑의교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모두들 변함없이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전 토요사랑의교실의 디렉터로 계셨던 구자왕 목사님께서 제일장로교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토요 사랑의교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부터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예배당이 유초등부 아이들로 꽉 채워지고, 모두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드리니 분위기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하여졌듯이, 우리도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 지기를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임현정 전도사님과 새로 부임하는 주양명 목사님과 인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필라제일장로교회' 구자왕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는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 시간을 열었습니다.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입체 카드를 만드는 시간도 갖고, 국민체조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핸드차임벨 연습은 2018년부터 디렉터를 담당해 주실 주양명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식사봉사: 2일-'첼트햄장로교회' 이웃사랑 / 9일-'한마음장로교회'(김영천 목사 시무) / 16일-'필라제일장로교회'(강학구 목사 시무) / 겨울방학.

토요 사랑의교실에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15-913-3008

단장 사역 보고

〈설교〉 3일(주일) & 6일(수): '몽고메리교회'(최해근 목사 시무) / 10일(주일) & 20일(수): '첼트햄장로교회'(담임목사 공석) / 25일(성탄절): '뉴욕 동원교회'(박희근 목사 시무) / 26일(화): 'Gwynedd 양로원' 필라목사회 주최 '성탄감사예배'

〈방문〉 4일(월): '필라문인협회' / 10일(주일): 오후 5시-'일송회 송년모임' 참석 / 17일(주일): '영생장로교회'(백은영 목사 시무), 오후 5시-'박상욱 장로' 교회 감사예배 참석 / 24일(주일): '엘림교회'(백의흠 목사 시무) '축도' / 31일(주일): '델라웨어 영원한교회'(고진석 목사 시무)

재정보고 2017년 12월

뉴욕

수입부: \$53,598.00

개인: \$9,090.00 \$20 Kil Do Yoo / \$50 Kyong C Burchan, Byung M Kim, Ki Man Bang / \$100 Seop Song, Soon Kyu & Grace Shin, Han Woo Bae / \$150 Jasong Kim & Byongin Choi / \$170 Charlene Kang / \$200 Katherine Lee, 무명 / \$400 Samuel Choi / \$500 KI R Chung, Chung Nam Byun, Sharon Lee / \$6,000 Se Jin & Seung Jin Park

교회/단체: \$10,468.00 \$20 Sky Cleaners / \$30 KS Nail / \$100 Salon Today, Woori Church of New York, The Siloam Reformed Church / \$200 Park Exterminator, 심령이가난한교회, The New York Dong Yang First Church / \$261 성탄예배헌금(토요사랑의교실) / \$300 Korean Evangelical Church of Queens / \$304 North America Medical Orchestra / \$400 Namu Church of NY / \$500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ayside / \$700 월사모, Pick & Pack Produce Inc / \$853 화요모임 / \$1,000 Dashing Diva Franchise Corp, 한국의국어대학교(E-MBA), All Saints Church, Light & Salt Presbyterian Church / \$1,500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지정: \$14,040.00 \$1,940 SSI / \$12,000 새 보일러 설치 / \$100 사랑의교실

Grant: \$20,000.00 Goldman Sachs

장소후원: 퀸즈한인교회 - 토요사랑의교실(어린이반) / 뉴욕장로교회 - 토요사랑의교실(성인반) / 퀸즈성결교회(조승수목사) - 화요찬양예배

물품 및 음식후원: 권영준, 더큰집, 토요 Society, 월사모, 광승협, Long Island Mom, 하은희 낙원잔치집, 한마음 스시팀, 구주원 꽃집, 총영사관 부인회, Kyle's Kimchi, Paldo

지출부: \$25,050.59

장애인복지: \$4,651.22 모기지 \$3,577.13 / 소득비 \$50 / 비품구입비 \$137.24 / 정원관리비(벌목비 포함) \$707.69 / Spectrum Cable \$179.16

사랑의교실: \$3,961.52 토요 사랑의교실 운영비 \$2,850 / 비품구입비

\$311.52 / 식사&간식비 \$800

선교비: \$3,840.29 직원인건비(2명) \$1,379.29 / 상회비(2017년 11월) \$526 / 밀알&세계 \$835 / 선교비 \$350 / 홍보비 \$750

전도봉사비: \$3,148.95 활동비 \$800 / 경조비 \$548.95 / 장애인보조 \$1,000 / 화요모임 \$800

사무비: \$7,228.75 직원인건비(2명) \$3,271 / 전기 \$460.31 / 세금 \$1,124.56 / 비품구입비 \$205.85 / 수리비 \$171.99 / 보험 \$1,722.04 / 메일 \$98 / 은행비 \$25 / Retirement Benefit \$150

차량유지비: \$2,119.86 모기지 \$488.68 / 보험 \$314.20 / 유지비 \$705.10 / EZ Pass \$315 / 수리비 \$176.38 / Parking Fee \$120.50

지정: \$100.00 사랑의교실

전월이월금: -\$8,080.62 | 차월이월금: \$20,466.79

밀알의밤 지출: \$2,075.00 사무실 렌트비

뉴저지

수입부: \$48,399.00

개인: \$10,790.00 \$10 Sugene April Kim, 고옥자, 김현진, 서진호, 손주형, 이충희&이미경, 조소형, 최윤경, 홍은실&이성운 / \$20 Young I Kim, 장영빈&장규진, 윤태자, 김선식, 안영근, 이진규&박혜원 / \$30 Rok Hur, Tori Scott&Gary Scott / \$40 서왕원, 홍성혁 / \$50 Kunchu&Jungsoon Lee, 고정화, 구영희, 김봉례, 송성일&송보희, 신은영, 엄이든&엄예든, 무명 / \$60 김진원 / \$100 Andrew Kim&Kyong Kim, 김경문&김재순, 김동수, 김영삼, 김영옥, 김일영, 백창주, 아이작, 이상욱&이옥진, 이영택, 이윤아, 조복순, 주우석&주안나, 최선호, 한원민, 무명 / \$150 박찬효 / \$200 Jongwon Lee, 길민우, 박대성, 서정용&서덕희, 천홍규 / \$250 강건, 강원호 / \$260 이동수&곽선희 / \$300 민병해&민양자, 박희열 / \$400 임순옥 / \$500 윤인숙, 이미경, 박종훈 / \$720 장현민 / \$3,000 김지현&김영옥

교회: \$4,480.00 \$90 한무리교회 / \$100 KCC School, 예수드림교회 / \$200 뉴저지 참된교회, 초대교회 / \$300 필그림교회(권사회), 리버사이드교회 / \$400 네모선교회 / \$590 가나안한인교회 / \$600 뉴저지안디

옥장로교회, 뉴저지믿음장로교회 / \$1,000 뉴저지순복음교회

단체: \$11,620.00 \$20 316 Pictures LLC / \$300 노성일 CPA, 무명 / \$1,000 Kwon's Foundation Inc / \$2,000 뉴저지여선교회연합회 / \$3,000 DSL Marine Corp. / \$5,000 Bloomberg L.P

지정후원금: \$4,350.00 <크리스마스 파티 \$750: \$50 무명 / \$700 본부 사랑의교실학부모>, <방과후학교 \$700: \$100 최다슬 / \$200 김혜성, 오은희&오수잔, 이신구&이지은>, <방글라데시 \$1,400: \$100 김미나, 송요한, 이한창 / \$200 조윤준 / \$300 체제동, 베다니이삭전도회, 홍두표> <라이드 \$500: 초롱>, <캠프후원 \$200: 이동수&곽선희>, <추수감사디너 \$300: 윤미숙>

장애인 콤포터: \$17,459.00 \$30 체제동 / \$100 홍효선 / \$365 이순자, 김영대&김옥순 / \$598 저금통 / \$500 뉴저지하베스트교회(베드로선교회) / \$1,000 Eunjin H. Suh DDS, 김예은, 이용복&이명선 / \$3500 무명 / \$9,001 뉴저지장로교회

지출부: \$37,579.46

사무관리비: \$6,331.75 간사인건비(4명) \$4,156.07 / 세금공과금 \$1,234.24 / 보험비 \$423 / 복사기리스 \$353.68 / 은행경비 \$50 / 전화비&인터넷 \$114.76

선교비: \$16,933.72 단장사례비 \$2,500 / 선교활동 \$916.52 / 자동차 관리 \$861.45 / 방과후학교 \$1,930 / 화요모임 \$1,275.35 / 밀알&세계 인쇄&발송 \$1,259 / 본부사랑의교실 \$4,712 / 중부사랑의교실 \$700/ 중앙비 \$479.40 / 연말선물 \$2,300

복지비: \$4,879.00 이사비용 \$4,550 / 유틸리티 \$429.05

장애인 콤포터: \$9,434.99 이자(2명) \$3,630 / 변호사 \$500 / 유틸리티 &유지비 \$1,044.84 / 보험 \$4,035.15 / 수리 \$225

전월이월금: -\$38,074.77 | 차월이월금: -\$27,254.77

장소후원: Calvary UMC, 참빛교회, 찬양교회

음식후원: 초대교회, 필그림교회, 디미방, 아리랑왕만두, 은하수잔치집, The 12 Baskets

필라델피아

수입부: \$14,671.00

이사회비: \$900.00 \$100 이재철 / \$200 김성식, 서창교, 조현우, 차형원

개인: \$4,420.00 \$20 고영선, 박산, 손주환, 원종현, 지영찬, 황인권 / \$50 양찬모, 이경애, 이광영, 이성두 / \$100 김선미, 이기복, 정문호, 한경숙, 한성균 / \$200 심의정 \$220 무명 / \$300 이재철, 무명 / \$400 장준수&장수연 / \$500 이도영, 이현일 &이숙 / \$1,000 이영재

교회: \$4,000.00 \$100 기쁨의교회, 사랑장로교회, 성도교회 / \$150 새한장로교회, 영원한교회 / \$200 열린문교회, 첼트햄장로교회, 필라사랑의교회, 필라한인침례교회 / \$300 엘림교회, 해리스버그한인장로교회 / \$800 코너스톤장로교회 / \$1200 체리힐제일감리교회

단체: \$1,750.00 \$100 마디병원 / \$150 하나투어 / \$300 세종회계사 / \$1,200 빛모임

특별지정헌금: \$3,601.00 <\$100 예수사랑교회> <\$700 몽고메리교회 작은밀알의밤> <\$1,301 무명> <\$1,500 일송회>

지출부: \$9,156.96

선교비: \$4,218.58 장학금 \$300 / 상회비 \$120 / 본부사역 분담금 \$1,800 / 단장사례비 \$1,200 / 활동비 \$300 / 자동차 보험비 \$158.08 / 가스 및 심방경비 \$194.19 / 자동차수리비 \$146.31

사무관리비: \$911.22 간사사례 \$600 / 통신비 \$211.22 / 믿음의교실 \$100

건물유지비: \$810.39 모기지 \$300 / 정수기 사용료 \$38.99 / 전기세 \$264.53 / 난방비 \$98.80 / 하수도세 \$108.07

사랑의교실: \$1,000.00 사랑의교실 운영비 \$800 / 사랑의교실 교육비 \$200

미디어선교: \$1,016.77 밀알&세계 발송비 \$181.77 / 밀알&세계 인쇄비 \$835

복지부: \$1,200.00 사택보조비

전월이월금: \$10,306.21 | 차월이월금: \$15,820.20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시 동작구 사당3동 218번지 청보빌딩 301호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 Tel: 301-294-6342 / Fax: 301-294-6195 / Email: milalusa@gmail.com

Milal Mission in New York 뉴욕밀알선교단 | www.nymilal.org

42-19 Bell Blvd., 2FL Bayside, NY 11361 / Tel: 718-662-8779 / Fax: 718-445-4887 / Email: nymilal@hotmail.com
Group Home: 142-44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 Tel: 718-445-4442 / Fax: 718-445-4887

화요찬양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밀알사무실(Bayside)
무료 토요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3:00	아동반: 퀸즈한인교회 베드로관 청소년반/성인반: 뉴욕장로교회
그룹홈 운영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형태의 생활공동체		Group Home
컴퓨터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00 ~ 3:00	Group Home
Cooking Class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Group Home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험(월사모)	매월 첫 주 월요일	오후 6:00 ~ 9:00	
직업재활(교회청소)	성인대상, 교회 환경 미화		

Milal Mission in New Jersey 뉴저지밀알선교단 | www.mijumilal.org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 Tel: 201-530-355 / 201-843-8808 / Email: miju92@gmail.com

화요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30 ~ 9: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분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Calvary UMC	185 W. Madison Ave, Dumont, NJ 07628
중부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6:00	찬양교회	15 Ceder Grove Ln, Somerset, NJ 08873
방과후 학교	매주 월~금	오후 3:00 ~ 6:00	참빛교회	55 Hillside Ave, Teaneck, NJ 07666
밀알예배	매주 주일	오전 11:00 ~ 오후 2:30	밀알 꿈터	30 Legregni St. Saddle Brook, NJ 07663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밀알선교단 | www.philamilal.org

423 Derstine Ave. Lansdale, PA 19446 / Tel: 215-913-3008 / Fax: 215-362-3940 / Email: philamilal@hotmail.com

화요모임 <민음의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9:3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성인 장애인 및 단원들의 모임, 찬양, 예배, 수화 배우기, 수화 찬양, 컴퓨터 배우기, 악기 배우기 등			
사랑의 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랜스데일 밀알선교센터
내용: 발달 장애 아동 Day Care, 찬양, 예배, 교육, Trip 등			
밀알의소리 라디오 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필라 기독교방송국 AM 1590 Mhz

Milal Mission in Canada 캐나다밀알선교단

1183 Davenport Rd. Toronto, ON, M6H 2G7 / Tel&Fax: 416-491-0002 / milalcanada@hot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4:00	성산장로교회(지하교육관)	1300 Caledonia Rd. North York, ON, M6A 3B9
스텝미팅	매주 토요일	오후 5:00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미주밀알선교단 워싱턴 / 볼티모어 / 버지니아 / 리치몬드 / 샬럿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뉴저지(중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남가주LA / 남가주OC / 텍사스 / 하와이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유럽밀알선교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오스트리아 / 화란 /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한국밀알선교단 강원 / 경기 / 고성.사천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김해 / 거제.통영 / 경남(진해) / 마창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파주 / 양산 / 경기광주

기타밀알선교단 뉴질랜드 / 호주 / 러시아 브리야트 / 인도 / C국(A,B) / 태국 / 네팔 / 이집트 / 카자흐스탄